市道·지역회 소식

서울 경우회

지난 4월 21일 서울경찰청 서경마루에서 구홍일 중앙회장, 김정웅 회장, 이기묵 서울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우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지난해 결산 및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권영국 前 경기경찰청 차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경기 경우회

최근 경기경찰청 강당에서 구홍일 중앙회장, 이동교 회장 등 전현직 경우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이동교 현 회장을 재추대하는 한편 조직발전을 결의했다.

경남 경우회

최근 관내 마산 로얄관광호텔에서 김상연 회장, 이춘성 경남청 차장 등 전현직 경우 1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지난 해 사업실적 결산과 금년도 사업계획안을 의결하고, 김상연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부회장에 성대권, 김규호, 김호석 회원을 각각 선출하고 조직의 발전을 결의했다.

강원 경우회

최근 김남석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우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지난해 결산 및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짓는 한편 최인철 회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조직발전을 결의했다.

한편 강원경우회는 지난 4월 27일 관동대학교에서 지방자치시대의 경찰의 발전 방향, 지방분권을 위한 경찰지방자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경찰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참전경찰유공자회

지난 4월 27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구홍일 경우회장, 문학동 회장, 허준영 경찰청장, 채명신 6.25 참전유공자중앙회장을 비롯한 내빈 등 전현직 경우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유공회원에 대한 표창, 지난해 결산 및 금년도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한편 참전경찰유공자회는 이날 임기가 만료된 문학동 회장을 비롯한 전체 임원들을 유임시켰다.

여경회

지난 4월 22일 도로교통안전공단 소강당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지난해 결산 및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이주자 전 서울 여경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회의 발전을 결의했다.

인천 경우 산악회

최근 이윤기 회장 등 회원 44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북 부안군 변산면의 내변산(해발 459미터)에서 정기 등반을 실시하고 회원 친목도모와 건강을 다졌다.

서울남부 경우회

최근 신명규 회장을 비롯한 회원 다수가 참가한 가운데 봄을 맞아 산림청으로부터 지원 받은 감나무, 매실, 산수유, 라일락, 느릅 등 묘목 1천 6백 여주를 관내 삼성산 일대에 식수했다. 이날 행사에 김영식 서장은 음료수를 지원해 고마움을 샀다.

강원횡성 경우회

최근 횡성문화원에서 고만수 회장을 비롯한 회원 1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사수 결의 대회를 갖고 일본의 망언을 규탄했다. 한편 횡성 경우회는 최근 관내 백세주 공장과 대하드라마 토지 촬영소, 횡성 댐 등을 견학했다.

분당 참전경찰유공자회

최근 이창만 회장을 비롯한 회원 다수가 참가한 가운데 청평 양수 발전소를 견학하는 단합대회를 갖고 회원 친목도모를 결의하는 한편 청평 호명산 일대의 오물을 수거하는 자연보호 활동을 펼쳤다.

경북구미 경우회

최근 김재수 회장을 비롯, 임시 임원회의를 갖고 금년도에 새로 선출된 임원진, 자문위원, 고문 등에게 각각 선임장, 위촉장, 추대장을 전달하는 하는 한편 금년 한해도 지역회 발전에 주력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구미경우회는 지난 4월 29일 70세 이상 원로들로 구성된 원로회를 구성하는 한편 김오용 회원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전현직간 유대강화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충남서천 경우회

최근 관내 웨딩홀에서 백병우 회장 이임식 및 나종곤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황재 서천경찰서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우, 내빈 등 1백 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낸 가운데 신임 나종곤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현직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경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예산 경우회

최근 김병호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우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관내 일대를 순회하는 기초질서 캠페인을 벌였다.

대전서부 경우회

최근 대전서부 경찰서 회의실에서 조만휘 회장을 비롯한 회원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갖고 조직활성화와 전현직 유대강화를 결의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한 前오문영 회장에게 공로패 및 경우 금뱃지를 증정했다.

서울마포 경우회

최근 김재현 회장을 비롯한 회원 다수가 참가한 가운데 일본의 독도망언과 관련, 전북 부안군 변산면 소재 불멸의 이순신 장군 촬영장을 방문 견학하는 한편 독도지키기 캠페인을 펼쳤다.

전남영암 경우회

최근 김남중 회장을 비롯한 회원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6.25 격전지 백마고지과 제2땅굴을 견학하는 한편 임실 호국원을 방문하고 위령비를 참배했다. 한편 이날 회원들은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과 자연보호운동을 펼쳤다.

대전중부 경우회

최근 이득재 회장을 비롯한 회원 1백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관내 일대에서 쓰레기, 담배꽁초 등을 줍는 한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질서 캠페인을 벌였다.

경남남해 경우회

최근 거봉 卓琴丸 선생 공덕비를 건립했다.

탁금환 회원은 현직시절인 6.25 동란시 해안의 機雷를 해체하여 지역주민들의 목숨을 구하는 한편 퇴직해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미국과 월남 등지에 파견되어서도 특수기술을 이용해 국위선양을 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왔다.

제주해경 경우회

지난 4월 28일 중앙회 구홍일 회장이 제주해경 경우회를 방문했다. 이날 구 회장은 고흥권 회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설명들은 후, 경우회 활성화 방안, 일반경찰과 해경의 동일부처 관리의 필요성, 경찰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회 회원들을 격려했다.

지방안테나

해경 총경급 인사에 여성 홍보맨 첫 영입

해양경찰청 창설 이후 최초로 총경급 관리직에 민간여성이 기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1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해양경찰청 정책홍보담당관에 임명된 한혜진(44세.여)씨. 정책홍보담당관직은 경찰서장 계급인 총경과 같은 직급으로 해양경찰의 정책과 활동상황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는 직책이다. 전체 해양경찰관 6천100여명 중 35명만이 총경 이상의 계급을 보유하고 있고 52년의 역사 속에서도 여성 해양경찰관으로는 가장 높은 계급에 오른 이가 경위(총경보다 세 계급 아래) 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라고 볼 수 있다. 해경청은 디지털 시대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홍보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방침 아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정책홍보담당관을 공모했었다. 한씨는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를 졸업, 경향신문에서 13년간 기자로 활동한 뒤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조직위 국제홍보팀장, 기업 컨설팅 홍보업체 '버슨 마스텔러' 이사를 역임했다.

한씨는 업무수행 계획서를 통해 '언론 매체에 집중됐던 홍보 채널을 인터넷, 방송프로그램 등으로 다변화하는 한편 특공대 체험캠프, 해경악대, 요트대회 등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사건 피의자 얼굴사진 공개 금지 지시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사건현장의 피해자.피의자 얼굴 사진을 공개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대언론 브리핑 등에서 피해자.피의자 얼굴 등이 촬영된 사진이 공개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수사와 관련없는 장면 등 피해자와 유가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진촬영이 이뤄지는데 이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 수사 관련서류에 피해자 얼굴이나 특정 부분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해 송치함으로써 공판과정에서 이를 보는 피해자와 유가족 등의 반발이나 명예훼손도 우려되는 만큼 증거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진만 첨부토록 했다.

해외경찰

LA 공항경찰, 초과근무수당만 수백만 달러

톰 브래들리 국제터미널 등 로스앤젤레스 공항경찰이 지난 해 초과근무수당으로 무려 760만 달러를 받았으며 경찰관 3명은 무려 1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초과근무수당 최고액 수령자는 주당 평균 84시간을 일하고 13만5천693달러를 손에 넣었다.

LA 공항경찰 연간 기본급이 5만 달러임을 비교할 때 거의 2.6배가 과외수당으로 지급된 셈이다.

전 세계 터미널 중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장 빈번한 LA 국제공항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의 제1 공격목표로 연중 절반 이상이 경계강화 조치가 내려지곤 해 경찰관들의 시간외 근무가 빈번하다고 공항관계자들은 덧붙였다.

범인검거 경찰 포상금 연간 120만弗

멕시코시티 시정부 공공치안국(SSP)이 지난 한 해 범인 검거 등 공을 세운 경찰관들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총 120만달러에 달했다고 멕시코 일간 레포르마가 보도했다. 포상금을 받은 SSP 소속 경찰관은 총 5천16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은 각기 해결한 범죄의 성격에 따라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호엘 오르테가 공공치안국장은 포상 금액을 높이면서부터 얼마 안돼 자동차 도둑만 총 586명 체포됐다면서, 경찰 포상금제로 멕시코시티내 차량도난 사건은 물론이고 가정집이나 상점의 폭력·강도 사건 등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공공치안국은 범인 검거에 공을 세운 경찰관들에 대해 격려금, 상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스타팔라파 지역의 한 경찰관은 "포상금제에 매우 만족한다"면서 "박봉인 경찰에게 각종 포상은 가정 생활에 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審判臺

전북경찰,유류비 횡령 직원 파면

전북지방경찰청은 88고속도로 순찰대의 순찰차 유류비 횡령 사건과 관련, 징계위원회를 열어 횡령 당사자인 장 모(43세) 경사를 파면하고 순찰대장인 오 모(54세) 경감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모(48세) 경감 등 순찰대 부(副)대장 3명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감봉 1개월, 김 모(34세) 경장 등 같은 행정계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견책 등 징계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파면된 장 경사는 2003년-2004년 88고속도로 순찰대 행정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순찰차의 유류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매달 120만-140만원씩 모두 2천680만원을 횡령했다. 또 해임된 오 경감은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데다 장 경사가 횡령한 금액 가운데 수십만원을 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중징계 사유라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횡령 당사자인 장 경사는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이날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생활 문란한 경찰관 해임 적법

사생활이 문란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여러 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동거녀와 해외여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이 모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으로 볼 때 해임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문란한 사생활이 드러나면서 파면처분을 받자 징계가 지나치다며 중앙인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해임처분으로 바뀌는 데 그치자 소송을 냈다.

경우신문 기고문은 이렇게!

時論, 提言, 독자의 소리 등 경우신문에 기고하실 분은 경찰발전이나 경우회 활성화 등 전현직 경찰과 관련된 내용을 200자 원고지 8매이내(A4용지 기준 2장이내=글자급수 14포인트)로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